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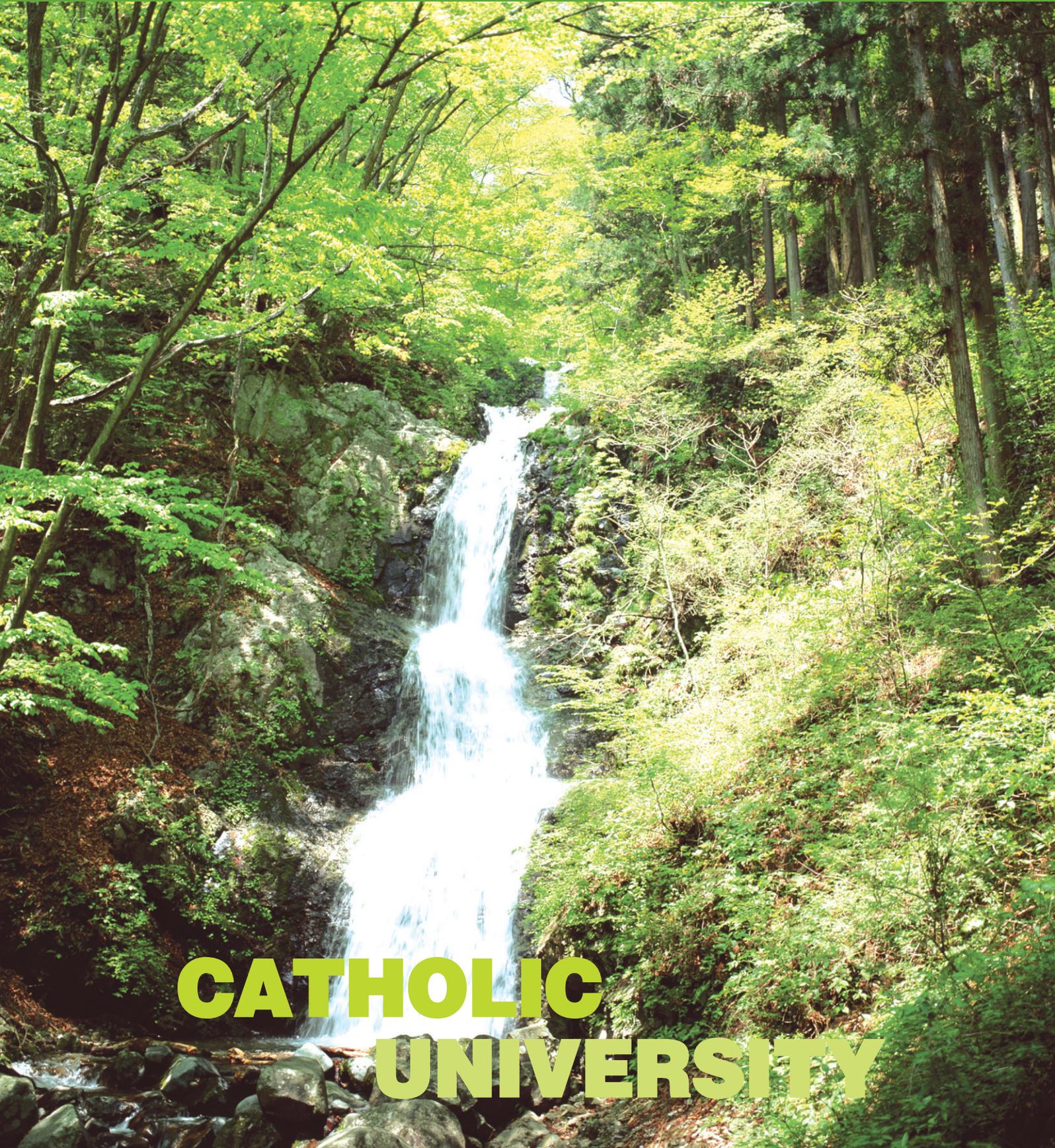


# NEWS LETTE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2008년 3월(12호): 2007. 11 ~ 2008. 3

발행인: 조용현 / 편집인: 김세웅, 손등완 / 편집위원: 김성대, 김선욱, 정조운 / 발행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 CATHOLIC UNIVERSITY

# CATHOLIC UNIVERSITY

NEWS LETTER



# Content



- 제59차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 4
- 조대행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취임 / 4
- 제 11회 동문 학술대회 및 송년회 / 5
- 4년차 공부방 방문 / 6
- 전공의 사은회 및 입국식 / 7
- 국제학술지 논문집 편찬 / 8
- 이지열 교수 제2차 Asian NEXUS 참석 / 9
- 학위취득 / 10
- 신입1년차 오리엔테이션 / 11
- 故 장준 교수 추모 미사 / 12
- 전공의를 마치며 / 13
-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 14
- 교수동정 / 22
- Staff 구성 (2008년) / 24
- 2008년 가톨릭대학교 비뇨기과 전공의 근무표 / 25
- 수요초독회 Schedule / 26
- 교실 봉사활동 일정표 / 27

**제59차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조대행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취임**

CATHOLIC UNIVERSITY

2007년 11월 21일 ~ 11월 24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59차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는 구연 14편, 포스터 21편, 비디오 3편 총 38 편의 연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성빈센트병원 조대행 교수님께서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조대행 교수님의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우리 교실의 자랑이며 또한 대한비뇨기과학회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고준성, 이지열교수가 '인체근육유래줄기세포의 말초신경재생 유도효과' 라는 제목으로 2007년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초부분 우수논문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조대행 교수(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고준성 교수



이지열 교수

## 제 11회 동문 학술대회 및 송년회

CATHOLIC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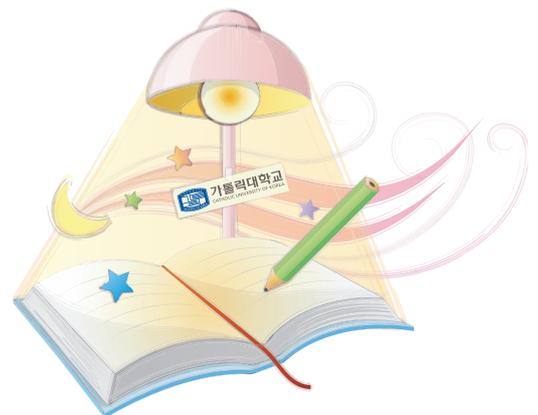
2007년 12월 1일 토요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제11회 동문학술대회 및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신명식 원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성모병원 '손동완 교수'가 PDE 5 inhibitors beyond ED, '이승주 동문'이 재발성 요로감염 환자의 치료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이상석원장님의 사회로 '전병남 변호사'가 의료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용현 주임교수님의 2007년 교실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료와 연구로 바쁜 일상 생활 중에 동문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 4년차 공부방 방문

CATHOLIC UNIVERSITY

2007년 12월 4일 조용현 주임교수님, 김세웅, 손동완, 김성대교수, 3년차 정조운, 정진우선생이 4년차 전공의 공부방을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물품들과 식료품을 전달하였고 같이 곱창집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 전공의 사은회 및 입국식

CATHOLIC UNIVERSITY

2008년 1월 28일 팔래스 호텔에서 사은회 및 입국식이 있었습니다. 주임 교수님이 모든 의국원을 대표하여 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기념패와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이무연 동문회장님이 졸업하는 4년차 선생님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전문의를 취득한 4년차 전공의들의 소감과 감사의 말에 이어 신입 전공의 소개와 입국의 각오를 들은 후 만찬을 함께하면서 서로간의 축하와 격려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4년차 (6명)

김수진, 김수환, 조강준, 이광배, 정윤석, 최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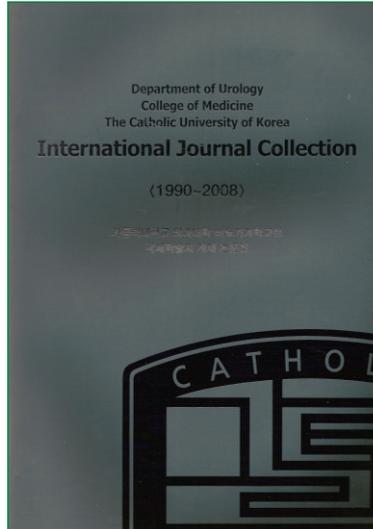
### 1년차 (7명)

강세희, 김석주, 신태승, 손준호, 우장춘, 최명선, 최진봉



## 국제학술지 논문집 편찬

CATHOLIC UNIVERSITY



본 교실이 1958년 개설된 후 현재까지 교육, 연구, 진료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실원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운 환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금번 본 교실 개설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100편에 가까운 국제논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교실의 귀한 발자취와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수록된 논문들을 보면서 중견, 원로 교수님들은 현재까지의 연구업적을 정리해 보는, 젊은 교수님들은 선배님들의 학문적 발자취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개척해야 할 학문적 분야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하는 교실의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지열 교수 제2차 Asian NEXUS 참석

CATHOLIC UNIVERSITY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비뇨기과 이지열 교수는 2008년 2월 15~16일 중국 곤명 (Kunming)에서 개최된 과민성방광 심포지움인 제2차 Asian NEXUS (Network of Excellence in Urological Science)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이 교수는 한국 남성의 과민성방광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인 'The Korean Experience of Treating Men with LUTS'에 대해 강의했으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참여한 비뇨기과 의사들의 워크숍 강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위취득**
CATHOLIC UNIVERSITY

2007년 2월 15일 금요일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에서 석,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 날 고준성교수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용현 주임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성 명	논 문 제 목	지도교수
고준성	인체 근육유래 줄기세포의 말초신경재생 유도효과	이지열



## 신입1년차 오리엔테이션

CATHOLIC UNIVERSITY

2008년 2월 22일 오후 4시 팔래스호텔에서 신입 1년차선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조용현 주임교수께서 인사말과 신입1년차에게 당부의 말씀을, 조수연교수가 이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손동완교수가 교실소개를, 하유신교수가 비뇨기과의 응급질환, 4년차 선생님이 전공의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저녁식사에는 황태곤 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새로 들어오는 1년차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故 장준 교수 추모 미사**
CATHOLIC UNIVERSITY

2008년 3월 5일 오후 5시30분 여의도성모병원 5층 성당에서 '김효성 원목신부님'의 집전으로 故 장준 교수의 명복을 비는 추모미사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2004년부터 대전성모병원 비뇨기과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는 비뇨기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2월 4일 저녁 8시경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선배 동료 교수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고, 후배들에게는 인자하고 인정 많은 선배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용현 주임교수, 황태곤 강남성모병원장의 비뇨기과 교수 및 전공의들이 모두 참석하여 고인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전공의를 마치며

CATHOLIC UNIVERSITY



강남성모병원 임상강사  
김수진

요즘 오래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모두 시간이 빠르다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비뇨기과 전공의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배, 동료, 후배들과 함께한 4년 동안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적도 있고 짧게 느껴졌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던 때는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바빠 움직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상할 수가 없어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 교수님들의 결정과 계획에 의해 환자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통해 저 자신도 좀 더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선배님들이 알려주시고 전수해주시는 조언과 정보를 통해서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 좀 더 쉽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공감하겠지만 오래간만의 오프, 그리고 여름과 겨울 휴가 때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일주일의 휴가가 끝날 무렵에는 휴가가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비뇨기과 전공의로서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비뇨기과에 여의사가 드물고 남자 환자들이 주로 비뇨기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전공의로서 4년 동안 배우며 느낀 점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또 한 그동안 잘 모르고 제대로 도움 받지 못했던 많은 여성 환자들도 있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자들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외국에 제가 침입(\*^^\*)하여 불편한 점도 있었을 텐데 4년 동안 저와 같이 근무하며 잘 지낼 수 있게 배려해준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공의로서 책임을 다한 적도 있고, 실수 혹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가르침이 있어 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무사히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4년간의 경험이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연구할 때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임상 강사라는 새로운 위치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보고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일한 태도를 지양하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日新又日新의 마음가짐으로 어제의 나 자신을 거울삼아 매일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여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강 세 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비뇨기과 1년차로 들어오게 된 강세희입니다.

저는 경남 함양에서 출생하여 3살 때 부모님과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 초등학교, 난우 중학교, 남강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3수를 하여 가톨릭 의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과 2학년때 집안일로 인하여 공부도 소홀해지고 방향도 하여 2번 유급을 한 후 본과 2학년때 현역으로 군 입대, 육군병장

만기 전역을 하여 2학년 복학하여 의대 졸업 후 성바오로 병원에서 전반기, 성가 병원에서 후반기 인턴 근무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 나이는 된 것 같은데 아직 미혼입니다.

원래는 학생때부터 정신과에 지원하고 싶었으나 학생 실습과 인턴 근무를 하며 정신과 환자들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점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인턴 근무를 하면서 수술방에서 근무해본 결과 수술방이 마음도 편하고 비록 어시스트였지만 나름대로 재미와 흥미도 느껴서 외과계열의 과가 제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뇨기과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가 병원에서 비뇨기과를 돌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외래 환자도 많고 바빴지만 큰 수술부터 작은 수술까지 수술의 폭도 넓고, 또 비뇨기과적 질환으로 타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 비뇨기과를 찾는 남자 환자들을 보고 안타까움도 많이 느껴 나중에 비뇨기과 의사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성가병원 과장님과 다른 교수님들도 저에게 너무 잘 대해주시고 분위기도 자유로워 성가병원으로 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뇨기과 1년차가 되는 지금, 레지던트가 된 사실이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주치의로서 환자를 잘 management 할 수 있을지, 큰 실수나 하지 않을는지, 뚜렷하고 확실한 목표를 아직 세우지 못해 좀 막막하고 걱정스럽지만 합니다. 하지만 1년차로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저도 언젠가 어엿한 비뇨기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차로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김 석 주

2008년 가톨릭 중앙의료원 비뇨기과에 입국하게 된 김석주입니다. 1981년 경남 거창 출생이며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두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교직에 계셔서 어려서부터 예의 범절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평소 산을 좋아하여 자주 산에 올라 자연의 경이로움에 곤잘 놀라곤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창에서 대성고등학교를 나왔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거창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사춘

기를 보냈습니다.

이 후, 병원도 많고 의료진이 뛰어난 가톨릭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무척이나 영광이었습니다. 축구반에 가입하여 평소 좋아하던 축구를 열심히 하였고 선후배들과의 친분도 쌓았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과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우선시 하였기에 학업성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나 한가지에 몰두하는 성격이라 제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뇨기과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뇨기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평소 surgery 파트에 관심이 있어왔었고, 청주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5월 비뇨기과를 돌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내시경을 이용한 기발한 수술에 감탄하여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일에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집중력을 살려 비뇨기과에 매진하여 수술이나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손 준 호

다정다감하시고 책임감과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 1남1녀의 장남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모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로 엄하시지만 언제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한 번 약속한 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를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이야말로 제가 찾던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시절 국경없는 의사회가 북한에서의 의료구호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는 행위 자체가 봉사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매력을 느껴 의사가 되기로 정했습니다.

의과대학 재학시절에는 많이 알아야 좋은 의사도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대구지역 의과대학 연합 가톨릭 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구지역 다른 의대 동기, 선후배들과도 친교를 나누고, 농촌지역 의료 봉사활동 및 무의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눔과 봉사에 관심을 갖고 현재도 집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매달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평소 외과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 하였으며, 비뇨기과는 수술이 간단한 수술부터 술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여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종양 수술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분야인 남성 불임과 전립선 및 배뇨장애등 다양한 영역이 있어 공부해 보고 싶었으며 의국 분위기 또한 화목하고 서로를 존중하여 같이 일하며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저의 꿈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제 자격이나 이력은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제가 가톨릭 의료원의 비뇨기과 의사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남을 만큼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여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두뇌로 끊임 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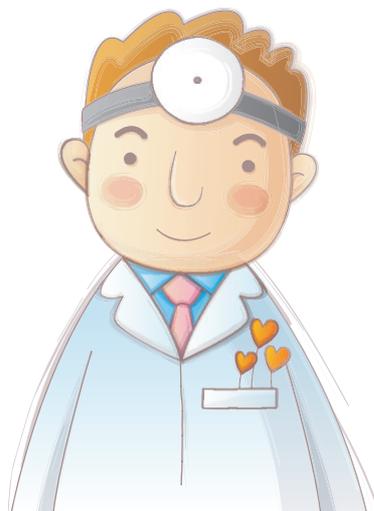
신 태 승

1981.10.28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반포고등학교 졸업 후 가톨릭의과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인턴 전반기는 성바오로 병원에서 수련 받게 되었으며 윤병일 선생님과 조수연 과장님, 그리고 김현우 교수님과 한달 동안 비뇨기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뇨기과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으며 그 어느 과 보다 환자들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호전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인턴 후반기는 현재 청주 성모 병원에서 수련 중입니다.

서울에 거의 가지 못하여 미리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운동은 학생 시절 농구를 좋아했었고 방학 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 공부를 다른 의과대학생 보다 조금 더 많이 하였습니다. 예전에 포토샵,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리미어, Maya등을 공부하였지만 이 중 기억나는 것은 포토샵과 프리미어 정도 밖에 없습니다.

비뇨기과 술기에 대해서는 foley 삽입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직 비뇨기과 1년차가 된다는 것이 실감 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우 창 준

안녕하십니까?

2008년 가톨릭 중앙의료원 비뇨기과에 입국하게 된 우장준입니다. 1981년 서울출생이며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여러 지역에 이사를 다니면서 성장했습니다. 십대 이전에는 부산에서 지내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여 중,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졸업했습니다.

아버님의 전근으로 이사가 많아 여러 지역에 걸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회도 많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친분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은 본교 출신(가톨릭 의과대학)으로 학창시절에는 '건사연-건강과 사회 연구회'라는 일종의 학술 동아리에 속해있으면서 세미나 활동도 해보고 운동 동아리로서 축구반에 가입, 많은 학우들과 재미있는 학창생활을 보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라는 천체 관측 동아리에 있으면서 교외로 자주 다니면서 관측활동을 하였습니다.

본과 2학년 이전에는 이와 같은 동아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었지만, 임상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동아리 활동은 줄이고 학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다만, 공부를 함에 있어 주로 관심 있는 과목에 치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학업 성적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나, 비뇨기과는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공부했던 과였고, 이는 본3/본4 실습을 거치면서 마음 속에 이후 선택하여 가야 할 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 학생 때 생각했던 과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인턴 턴 표 마지막 2월 달에 마침 비뇨기과를 배정 받아, 비뇨기과의 실제적인 업무와 학술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접해본 후, 곧바로 레지던트로 시작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교우관계를 살려 좋아했던 비뇨기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최 명 신

저는 창원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뜻이 있어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때 의대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수능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지방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 재학시 공부는 물론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동아리에도 참여하면서 나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나긴 6년간의 학업과 의사국가고시를 무사히 마치고 저는 모교에 남을 것인가 아님 원하는 병원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끝에 편한 모교를 뒤로 하고 cmc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공부하고 몸담아 왔던 학교의 대학병원을 떠나 다른 외부 병원에 지원한다는 것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 주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운 병원, 의사의 의술과 더불어 성품까지 평가하는 병원,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평가 방법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병원, 실력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병원, 새로운 제도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해 나가는 병원, cmc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인턴과정을 수련하면서 여러 지역의 병원 근무를 통해 다양한 환자들과 의료시설 및 환경 등을 접할 수 있고, '인턴진료지침서'를 비롯하여 최상의 인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잡일 해소 등의 실질적인 업무 조정 등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cmc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와 최고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의료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을 만큼 높은 의료수준을 지니고 있는 병원으로서, 의사라면 누구나 꼭 근무해 보고 싶은 병원이라고 생각되어 전공의 과정도 cmc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인턴 수련기간 동안 여러 과를 돌면서 다양한 지식과 과 특성을 배우면서 무슨 과를 지원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 전에 비뇨기과를 돌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배님의 조언도 많이 듣고 비뇨기과가 매력있어 보였으며 멋진 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터 남성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그러기에 나 자신이 비뇨기과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신념도 있어 비뇨기과를 소신지원하였고 무사히 비뇨기과 전공의에 합격하여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cmc,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로서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병원생활에 임할 것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실력 있는 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정성을 다하는 의사가 될 것이며, 환자와 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팀웍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며, 제가 전공하는 분야(비뇨기과)에서 최고의 실력을 지닌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cmc,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로서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병원생활에 임할 것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실력 있는 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정성을 다하는 의사가 될 것이며, 환자와 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팀웍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며, 제가 전공하는 분야(비뇨기과)에서 최고의 실력을 지닌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 2007년 신입 전공의 소개

CATHOLIC UNIVERSITY



최진봉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의대에 지원한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사란 직업이 좋아보여서, 다른 사람들보단 좀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시작하였지만

어느덧 비뇨기과라는 세부적인 과도 정하게 되고 이제 병원이라 곳에서의 합숙 생활에 적응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길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병원 생활이지만 그동안의 인턴 생활을 돌아보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턴 초반에 stricture로 인해 Foley catheter를 insertion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을 때 비뇨기과 선생님이 오셔서 과감하게 끼워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간단한 procedure지만 환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line이 삽입되었을 때 환자를 비롯한 주치의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뇨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냥 관심 있는 과에서 저의 남은 의사 생활을 같이 할 과로 정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주치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인턴 생활과는 달리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하여 후회 없는, 또 환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수동정

CATHOLIC UNIVERSITY

### 승진

- 김준철 : 부교수 --> 교수
- 김현우 : 조교수 --> 부교수
- 고준성 : 전임강사 --> 조교수
- 김효신 : 전임강사 --> 조교수

### 신규임용

- 김재식 : 성모자애병원 임상강사
- 김상훈 : 성바오로병원 임상강사 (5월1일 발령)
- 김수진 : 강남성모병원 임상강사
- 정운석 : 의정부성모병원 임상강사
- 소성민 : 대전성모병원 임상강사

### 퇴직

- 장 준 : 대전성모병원 조교수
- 최아람 : 의정부성모병원 임상강사
- 박덕진 : 성바오로병원 임상강사
- 광경민 : 대전성모병원 임상강사

### 해외학회 참가

#### ●2007.12.5-12.7

The 9th Annual meeting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ediatric Urologist  
(APAPU) Shanghai, China

참가자: 부교수 서홍진, 한창희

연제발표: Protective effect of cranberry juice on infection induced oxidative renal  
damage in a rabbit model of VUR 부교수 한창희

#### ●2007.12.13-16

The Eastern Asian Society of Endourology 2007 meeting HongKong, China

참가자: 교수 황태곤, 조교수 이용석, 홍성후

강의: Recent update in Endourology 교수 황태곤

연제발표: Prediction of surgical margin status and biochemical recurrence in  
patient with prostate cancer treated by LRP 조교수 홍성후

#### ●2008.2.6-2.10

러시아 감염 화학요법학회

Moscow, Russia

좌장 : Current trends of UTI

주임교수 조용현

#### ●2008.2.15-2.17

The 2nd Asian Network of Excellence in Urological Science(Nexus) Meeting

Kunming, China

강의: The Korean experience of treating men with LUTS

부교수 이지열



## Staff 구성 (2008년)

총 28명

교수 8명, 부교수 6명, 조교수 6명,  
전임강사 1명, 임상강사 7명

### ●●● 성모병원

교수 조용현 (주임교수), 김세웅 (과장)  
조교수 손동완  
임상강사 김성대

### ●●● 강남성모병원

교수 박용현, 황태곤, 김준철 (과장)  
조교수 홍성후  
임상강사 조혁진, 김수진

### ●●●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 강성학  
부교수 한창희 (과장)  
조교수 이용석  
임상강사 정윤석

### ●●● 성 바오로병원

부교수 조수연 (과장), 김현우

### ●●● 성빈센트병원

교수 조대행  
부교수 이충범 (과장)  
전임강사 하유신

### ●●● 성모자애병원

교수 이동환  
부교수 서흥진 (과장)  
임상강사 김재식

### ●●● 성가병원

부교수 이지열 (과장)  
조교수 고준성, 김효신

### ●●● 대전 성모병원

조교수 김두배  
임상강사 소성민

2008년 가톨릭대학교 비뇨기과 전공의 근무표 (전공의총 23명)

년 차	이 름	3	4	5	6	7	8	9	10	11	12	1	2
R1	우장춘	여의도						의정부					
	손준호	강남						부천					
	최명선	강남						수원					
	김석주	의정부						강남					
	신태승	의정부						여의도					
	최진봉	수원						의정부					
	강세희	부천						강남					
	R2	이현림	강남				바오로				대전		
	배웅진	여의도				부평				바오로			
	유제모	대전				부천				여의도			
	이동섭	의정부				대전				부평			
	정무열	부평				수원				강남			
R3	김성인	수원				강남				여의도			
	김희연	수원				의정부				여의도			
	이남석	여의도				강남				수원			
	이병희	바오로				여의도				강남			
	정문수	부천				여의도				강남			
	이호재	강남				수원				의정부			
	R4	김선욱	여의도				강남				여의도		
	최항원	강남				여의도				여의도			
	정조운	여의도				강남				강남			
	정진우	강남				의정부				강남			
	윤병일	의정부				여의도				의정부			

**2008년 상반기 수요초독회 일정**
**3월 5일 : 남성 & 불임**

시간 : 오후 5시 30분, 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김세용**

남성불임의 원인, 진단

R2 배웅진

남성불임

외부연자 서주태

**3월 19일 : 소아의배뇨장애(Enuresis, Daytime Frequency)**

시간 : 오후 6시, 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서홍진**

Enuresis &amp; Daytime frequency의 치료Enuresis의 약물 치료기간

R3 김성인

소아의 요역동학적 검사

R4 최항원

**4월 2일 : Bladder cancer**

시간 : 오후 6시, 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이용석**

Bladder cancer의 Chemotherapy, adjuvant and neoadjuvant chemotherapy

R4 윤병일

Bladder cancer research

외부연자 박흥석(고려대)

**4월 16일 : TCC of ureter, renal pelvis**

시간 : 오후 6시, 장소 : 본관 지하1층 2회의실

**김현우**

Renal pelvis ca., Ureter cancer의 진단, 치료, 추적관찰 &amp; postop CTx

R3 이병희

Lower ureter cancer의 Treatment and F/up

R4 정조운

**5월 7일 : Prostate Cancer**

시간 : 오후 6시, 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이지열**

Treatment of HRPC

R3 정문수

male incontinence and postprostatectomy incontinence의 발생과 치료

R4 정진우

Robotic Surgery in Urology

외부연자 나군호 (연세대)

**5월 21일 : UDS의 판독과 의의**

시간 : 오후 6시, 장소 : 본관 지하1층 2회의실

**이동환**

UDS의 적응증, 각 검사별 정상 소견

R2 이동섭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및 신경인성방광환자의 UDS 소견

김준철

**6월 4일 : 손상**

시간 : 오후 6시, 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한창희**

Bladder injury, ureter injury, urethral injury

R2 이현림

effect or differences of primary &amp; delay treatment of ureter&amp; urethral injury

R3 이호재

**6월 18일 : 소아**

시간 : 오후 5시 30분, 장소 : 본관 지하1층 2회의실

**조수연**

소아 요관류의 다양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고찰

R3 김희연

소아 신우요관이행부 폐색에 대한 고찰

R3 이남석

가톨릭의대 비뇨기과 봉사활동

2008년 비뇨기과 가정 꽃동네 진료시간표

날짜	전공의	날짜	전공의
2008년 3월 13일	김선욱	2008년 9월 11일	김희연
2008년 3월 27일	이호재	2008년 9월 25일	정문수
2008년 4월 10일	윤병일	2008년 10월 9일	이남석
2008년 4월 24일	김희연	2008년 10월 23일	이호재
2008년 5월 8일	이남석	2008년 11월 6일	김성인
2008년 5월 22일	이현림	2008년 11월 20일	이병희
2008년 6월 5일	배웅진	2008년 12월 4일	이남석
2008년 6월 19일	정진우	2008년 12월 18일	이호재
2008년 7월 3일	최항원		
2008년 7월 17일	정조운	2009년 1월 15일	유재모
2008년 7월 31일	정무열	2009년 1월 29일	정무열
2008년 8월 14일	이병희	2009년 2월 12일	김희연
2008년 8월 28일	김성인	2009년 2월 26일	정문수

영등포 요셉의원 진료

날짜	전공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성모병원 비뇨기과 전공의

